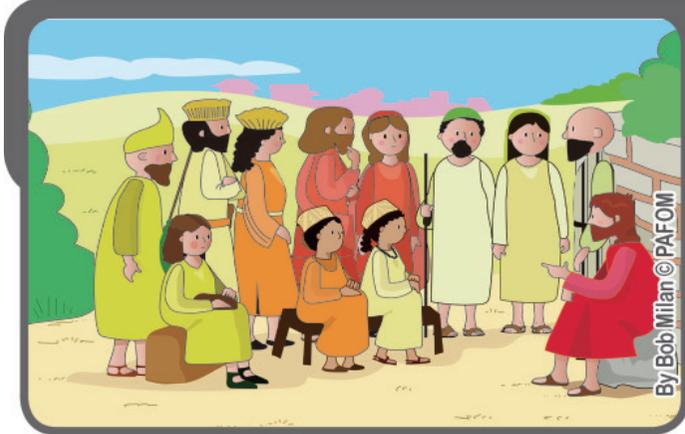




히브헤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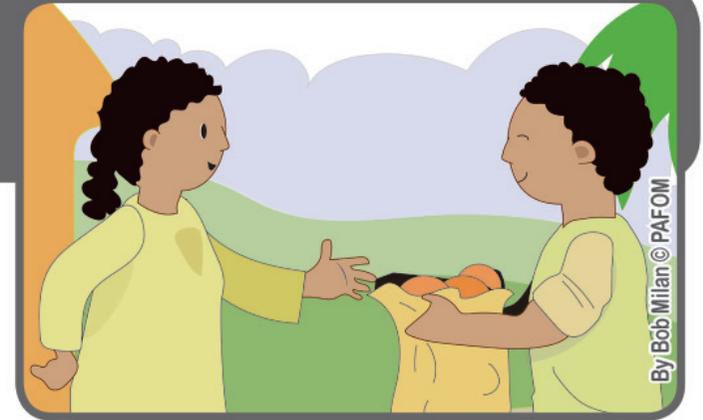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루카 6장 38절)



여러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 왔어요.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것을 청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건뿐만이 아니라, 잘못을 용서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환영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실 거예요.



파디는 전쟁으로 인해서 오염된 물을 마시다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파디를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는 약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디는 한 아주머니께서 약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을 보았어요. 마침 파디가 받은 약이 아주머니에게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파디는 그 아주머니에게 약은 나눠 드렸어요.



아주머니께서는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며칠 후 파디는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아픈 곳이 깨끗이 나아졌어요.